

도료기업 "빈익빈 부익부"

상장 6사 매출액 급증 ... 공업용 도료기업 약진

94년 상장 도료6사의 매출액이 공업용도장 부문의 수요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 상장사의 총매출액은 7998억원으로 93년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장은 엔고에 따라 자동차생산과 선박건조량의 증가로 자동차용 및 선박용 도료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료 상장6사 경영실적(1994)					(단위 : 억원, %)	
구 분	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	
대한페인트	1,381	1.8	37	▽1.6	20	24.9
건설화학	1,200	7.4	44	▽7.0	36	▽16.4
조광페인트	574	13.1	28	0.3	19	18.2
고려화학	3,930	24.5	504	44.6	338	49.6
현대페인트	364	13.7	4	27.7	2	48.1
삼화페인트	549	18.5	17	▽31.4	15	▽90.1
합 계	7,998	16.1	634	31.9	430	▽5.1

상장6사의 경상이익은 고려화학의 이익이 신장되어 634억원으로 93년대비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화학을 제외한 상장 도료5사의 경상이익은 세계 경기회복과 미국, 일본 석유화학기업의 잇따른 사고로 8월부터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원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삼화페인트가 93년 공장 완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30%이상 감익이 추정돼 143억원으로 93년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고려화학은 자동차·조선업의 호황에 따른 자동차용 및 선박용 도료의 매출신장으로 고정비 부담 감소효과가 원재료비 인상효과를 상쇄하여 700억원으로 93년대비 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페인트가 1381억원으로 93년대비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잉크사업부의 분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화학은 1200억원으로 93년대비 7.4% 증가해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화학이 공업용 도료의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95년 상장 도료6사의 매출액은 자동차·선박의 수출호조와 국내경기 호황으로 도료 수요가 늘어나고 94년 원재료비 상승에 따라 도료 판매가격이 10~15% 인상되어 9437억원으로 94년대비 1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이익은 상장도료기업들의 고정비가 고려화학, 조광페인트의 공장완공에 따라 급증하고, 원재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상승, 682억원으로 94년대비 7.6% 증가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5/5/15>